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세계지리 총평 및 분석

출제 경향 분석

- **세계화 1**
  - 고지도 1
- **자연지리 6**
  - 지형 3
  - 기후 3
- **인문지리 3**
  - 종교 1
  - 도시 1
  - 인구 1
- **자원 2**
  - 식량 1
  - 에너지 1
- **지역지리 7**
  -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2
  -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2
  -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2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 1
- **현대의 공존의 세계 1**
  - 환경 1

동상적인 수준의 단원별 분배로 출제되었습니다.

총평

7월 문항의 난이도는 높지 않았으나, 상위권 수험생도 실수할 만한 까다로운 문항들이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소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합답형 매칭형 문항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2024학년도 평가원/수능과 연계된 문항이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았으며,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교 문항**: 6월에 이어 9월에도 띠즐 형태로 출제되었습니다. 수능에서도 새로운 유형의 띠즐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기후 문항**: 최근 3개년 수능 기출과 유사한 기조를 보였으나, 변화할 시점이 되었으므로 변칙적인 출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1 고지도

연관 문항

6월에 이어 2번 연속 출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7이나 8정도 파트가 2번 연속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수능에 등장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출제되더라면 지역지리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화산 지형 & 카르스트 지형

무난한 문제와 별개로 지금의 내용이 6월 모의고사의 영조제에서 다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 외 사회지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지리와의 수능에서도 유사한 편집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몬순 아시아

2024학년도 9월에 고난도로 출제되었던 국경선 문제가 단순 매칭 형태로 변형되었고, 9월 모의평가에서 특정 소재를 다룬 후 수능에서 심화되어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지도에 표시된 국가들의 국경선과 핵심 키워드만 있어도 충분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기후

6월 문제와 유사하지만 서울과의 편차가 아닌 세 지역 시로간의 편차입니다. 두 시기 중 차이가 더 큰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최근 이 단원은 국가별 지도에 표시하고 특징을 묻는 형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및 수입국, 적은 국명 등 까다로운 선지와 달리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6 대지형

두 산맥의 제시되었으며, 우랄 산맥의 위치와 특징을 아는 것이 문제 해결의 전부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 모의고사에도 등장한 부분입니다.

7 방하 지형

특별한 내용은 없었으나, 마지막 <보기>에서 별루 라군을 언급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8 식량 자원

백백한 문항 배치 때문에 제한 조건을 각주로 처리한 점이 오면에 보는 형식입니다. 오세아니아가 반수로 제시되었으나, 두 대륙만 구분시켰던 는는 문제로 기존 고난도 식량 자원 문항보다는 수월했습니다.

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24학년도 수능의 중남부 아메리카 문제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으로 변형한 문제입니다. 국경선 정보가 선지가 아닌 지표에 제시되었으며, 최근 지엽적으로 출제되는 국가들의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콩고 민주 공화국이 내륙국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둘 것입니다. 이번으로 4년 새 살펴보기 어려운 문항이었기도 합니다.

10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인구량 국가별 지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선지로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지표의 선지 모두로 제시되어 수월했는 것이었습니다.

11 몬순 아시아

뉴욕을 미국의 수도로 착각하는 낚시에 걸리지 않는다면 정답 처해는 쉽게 도출되었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출 상대국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APEC 선지를 보아 2024 수능 기번 문항의 영향을 받은 듯합니다. 제 모의고사에 출제한 선지입니다.

12 종교

시크교로 잘못 독특한 문항이었고, 합답형 구성 또한 까다로웠습니다. 시봔 문화 스타일의 파즐 문제라면 보다리만, 실제 난이도는 이전의 4정 2정 정도의 난이도와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보기>의 정오를 판지를 판단하는 문단까도록 유도하여 오답률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에 이어 신유형이 등장한 만큼, 수능에서도 다음 고난도의 파즐 형태로 출제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13 에너지 자원

EBS 연계 문항으로, 변수가 많이 보이지만 핵심을 파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중국이 석탄 생산량 1위임과 동시에 순수입국이라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기후

다음의 고원고산 기후) 관련 선지가 정오를 가르는 핵심적인 내시입니다. 별도로 이로 인해 파악해 보시라며 있었고, 과거 기후와 관련하여 지표 등장한 형태의 선지가 매 달은 수험생이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15 인구

6월에는 없었던 ㄱㄴㄷ 합답형 문항이 9월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수능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의 적은 증가 계산을 활용하여 나서에 값이을 수 있는 합답형 선지를 구성했으므로, 단순히 모르는 내용을 넘기기보다 선지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16 북부 아메리카

문제 자체는 작년 수능(고난도로이어) 시카고 구분보다 훨씬 평이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내 두 지역을 구분하여 표시한 점이 함후 수능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단서로 보입니다.

17 유럽

과거 고난도 갈등 문제의 단골 소재였던 벨기에는 상대적 출제되었고, 대신 출제 빈도가 낮았던 북아일랜드 관련 문제에서 오답이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기존에 알 다루지 않았던 지역 갈등과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도시

무난한 문항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이집트의 인구 특성 구분, 브라질의 수도(브라질리아)가 수위 도시가 아니라는 점 등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19 기후

지표가 복잡해 보이지만, 발문을 역으로 해석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수상도시는 홍콩지나보다 기울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기후와 지표지는 모두 연중 습윤한 기후이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게 같이 조건을 단정하면 명확한 기후 문제가 됩니다. 다만 <보기>에 '이고기'없이 한답한 점이 특이하며, 수능에서 대기 대순환과 연계하여 심화된 내용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 환경

단순 암기형 문항인 문제입니다. 작년 9월에도 단순 암기 문제가 수능에서 도시의 특성을 묻는 지역지리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된 사례가 있었으로, 이번에 등장한 탄소로, 제로화, 파리 협약과 관련된 각 지역의 특성도 함께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